# ISSUE BRIEF

이슈브리프 320호 (2022. 1. 6)

## 중국 시진핑 주석의 2022년 신년사 분석 및 평가

제320호

양갑용 외교전략연구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국문초록

시진핑 주석이 취임 후 아홉 번째 신년사를 발표했다. 신년사 발표라는 정치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은 시대 인식과 전략 방향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우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는 목표 지향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이라는 과정을 중시하는 새로운 관행이 등장했다.

둘째, 당과 당원의 책임성을 유독 강조했다.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을 통해서역사, 시대, 인민을 저버리지 않는 책임성을 재차 언급했다.

셋째, '토굴 대화' 서사를 소환하여 마오쩌둥의 '민주'와 시진핑의 '자아혁명'이 역사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넷째, 홍콩, 마카오, 대만 등 동포의 염원을 근거로 조국의 완전한 통일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러한 완전한 통일의 강조는 매 신년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신년사에서 시진핑 주석은 2021년 평범하지 않은 한 해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대내외 환경이 녹록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국의 방향은 '안정'이었다. 이러한 기조가 신년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안정을 부르짖을만큼 2022년이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는 현실 인식이 신년사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핵심어: 국가 건설, 책임성, 자아혁명, 양안 통일, 안정

### 중국 시진핑 주석의 2022년 신년사 분석 및 평가

#### 양갑용 (외교전략연구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3월 국가주석에 취임하고 그해 마지막 날 저녁 7시 집권 후 첫 신년사를 발표했다. 그리고 2021년 말 아홉 번째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신년사발표가 관행으로 정착했다. 2022년 신년사는 평범하지 않은 한 해를 보낸 의미가남다르다는 말로 시작해서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기원하며 함께 미래로 나아가자는말로 끝을 맺었다.

####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 강조

시진핑 주석은 신년사에서 과정으로서 '국가' 건설을, 목표로서 '강국' 건설보다 더욱 폭넓게 강조했다. 그리고 2021년 추진했던 여러 가지 일을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 건설 여정의 시작으로 평가했다. 과정으로서의 사회주의 현대화 달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또한 신년사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보다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2017년 10월 18일 중국공산당 제19기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의 결정적 승리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자(決勝全面建成小康社會奪取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勝利)〉라는 정치 보고를 발표했다. 시진핑 주석은 당시 정치 보고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는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에서 전면적으로 승리하고 전면적인 사회주의현대화 강국 건설로 나아가는 시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회주의현대화 강국을 강조했다. 즉, 시진핑 주석은 19차 당대회에서 "이번 세기 중엽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건설을 분명한 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로드맵으로서 두 단계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첫 단계는 2020년부터 2035년까지 15년 동안 전면소강사회건설(全面小康社會建設) 기초 위에서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2035년 부터 2050년(본문에서는 이번 세기 중엽으로 표현)까지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 기초 위에서 다시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적이고 조화로우며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신년사에서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는 목표가 사회주의 현대화국가 건설로 치환되었다. '강국'이라는 용어가 함축하는 강경 이미지를 우려하여 '톤다운'한, 일종의 중국의 대외 전파능력(傳播能力) 조정의 일환으로 읽힌다. '강국'목표 지향을 일반적인 의미의 '국가'로 치환한 것은 중국의 미래 발전이 절대로 타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국가 건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읽힌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 현대화국가 건설이 바로 발전도상국들의국가 건설 과정인 성장, 발전 과정과 맥락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 사회주의 현대화 과정의 다섯 단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현대화 과정은 크게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개혁개방 초기에서 1990년까지로 주로 인민들을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하는 (溫飽)'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였다. 두 번째 단계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인민의생활 수준이 '살만한(小康)'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 단계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全面小康社會)'를 건설하는 단계였으며, 네 번째 단계는 1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첫 번째 단계로 2021년부터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단계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19차 당대회에서 두 번째 시기로 제시한 2036년부터 2050년까지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적이고 조화로 우며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단계이다.

중국은 이 모든 단계를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로 이해하고, 시진핑 주석의 신년사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 즉, 중국이 추진하는 현대화를 과정으로 이해하고, 이번 세기 중엽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신년사를 통해서 이를 재차 강조했다. 따라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은 다섯 번째 현대화 과정이며 이것이 최종 지향하는 것은 강국 건설을 통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완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 강조되면서 중국이 마치 이번 세기 중엽에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전략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중국은 경계할 필요가 있었다.

#### 당과 당원의 책임성 강조

이번 신년사에 유독 눈에 띄는 대목이 바로 '저버리지 않는다(不負)'라는 표현의 등장이다. 모두 다섯 번 등장한다. 이러한 표현은 2013년 이후 9차례 신년사에서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다. 신년사에서는 "초심을 잊지 않아야 바야흐로 처음과 끝을 지켜낼

수 있다. 분발하고 성실하며 나태하지 않아야 바야흐로 역사를 저버리지 않고, 시대를 저버리지 않고, 인민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표현과 "사람이 청산(靑山)을 저버리지 않아야 청산도 반드시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사실이 표현은 신년사에서만 이번에 처음 등장했을 뿐 시진핑 주석이 평소에도 즐겨 사용하는 것이다. 즉, 18대 이래 시진핑 주석은 여러차례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신시대 중국공산당 당원들이 가져야 하는 굳건한 입장, 원대한 포부, 정신과 숭고한 심경 등을 강조해왔다. 2021년에도 서로 다른 13개 장소에서 24차례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2월 25일 전국 빈곤퇴치 총결 표창대회, 3월 6일 전국정협 회의에 참가한 의료보건교육계 위원과 대화, 6월 25일 중앙정치국 제31차 정치국 집체학습, 7월 1일 당창건 100주년 경축 기념대회, 9월 14일 국제우호인사들에게 보낸 편지, 12월 14일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中國文聯) 제11대, 중국작가협회(中國作協) 제10대 대회 개막식 연설 등 여러 맥락에서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장소에서 여러 내용으로 강조한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의 핵심은 이번 신년사에서 언급한 "역사를 저버리지 않고, 시대를 저버리지 않고, 인민을 저버리지 않는" 세 가지 표현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는 중국공산당과 중국공산당 당원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가가 나아갈 방향에서 역사와 시대와 인민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읽힌다.

#### '토굴 대화(窯洞對)'의 서사 소환

시진핑 주석은 이번 신년사에서 역사적 경험과 맥락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오쩌둥 (毛澤東)과 황옌페이(黃炎培)의 이른바 '토굴 대화(窯洞對)'를 소환했다. 최고 지도자의 주요 연설에서 과거를 소환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근거로 현재의 의미를 정당화하는 중국의 오랜 관행이다. '토굴 대화'의 일화가 신년사에 등장한 이유도 바로 역사 주기율에 따른 변화를 의욕적이고 주체적인 입장에서 신시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겠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토굴 대화'는 70여년 전 마오쩌둥과 황옌페이가 옌안(延安) 토굴에서 가진 역사주기율(曆史周期率)에 관련한 토론을 가리킨다. 1945년 7월 황옌페이 등 6명의국민참정회(國民參政會) 참정원들이 중국공산당 근거지 옌안을 방문하여 마오쩌둥과대화를 나눴다. 그 자리에서 황옌페이는 "사람, 집, 단체, 지방, 국가 모두 주기율의지배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역사도 주기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에대해서 마오쩌둥은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았다. 이러한 주기율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새로운 길은 바로 민주(民主)이다. 오직 인민이 정부를 감독할 수 있다면 정부는 나태해지지 않고 오직 사람들이 책임을 짊어진다면 사람이 망하고 정치가 끝나지는 (人亡政息)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오쩌둥이 '민주'를 통해서 역사 주기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면 시진핑 주석은 지금은 '자아혁명(自我革命)'을 통해서 주기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오쩌둥과 황옌페이의 '토굴 대화'를 소환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신년사에서 언급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현재에 소환하여 중구공산당 역사에 대한 마오쩌둥의 입장과 관점이 시진핑이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 소명과 매우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조국 통일에 대한 염원 표출

시진핑 주석의 9차례 신년사 가운데 빠지지 않고 등장한 것이 바로 홍콩, 마카오, 대만에 대한 공동의 염원을 담은 수사(修辭)이다. 이번 신년사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조국은 줄곧 홍콩, 마카오의 번영과 안정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중국의 당과 국가가 이들 지역과 인민들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和衷共濟), 함께 노력해야(共同努力) 비로소 '일국양제(一國兩制)'가 안정적으로 멀리 갈 수 있다"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리고 "조국의 완전한통일 실현은 양안(兩岸) 동포의 공동의 염원"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또한 "중화 아들 딸들이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 중화민족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창조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라는 언급도 잊지 않았다. 이처럼 기존 관행에 따라 이번 신년사에도 홍콩, 마카오, 대만에 대한 언급이 이어졌다.

2018년 신년사에서 시진핑 주석은 "홍콩 반환 20주년 때 홍콩에 가서 직접 보니, 조국이 강력하게 받쳐주고, 홍콩이 장기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면서 내일은 반드시더욱 아름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9년 신년사에서는 "수많은 홍콩 마카오 대만주민들이 거주증을 얻고 홍콩은 전국 철도망에 진입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2020년 신년사에서는 "며칠 전 마카오 반환 20주년 경축 활동에 참석했다. 마카오의 번영과 안정에 기쁘고 위안이 된다. 마카오의 성공과 실천은 일국양제가 완전히통하고 실행되고 인심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몇 달 동안 홍콩정세가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화롭고 안정된 환경이 없으면 어떻게 편안하게살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집이 있겠는가? 홍콩이 좋아지고, 홍콩 동포가 좋아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홍콩의 번영과 안정은 홍콩 동포의 염원이며 조국 인민의 기대이다"라고 언급했다. 2016년 양안관계 신년사에서는 "나와 마잉주(馬英九) 선생은

싱가포르에서 만났다. 66년을 뛰어넘어 악수를 했다. 이는 양안관계의 평화발전이 양안 동포의 공동의 염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신년사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양안 동포, 통일 등 용어이다. 이번 신년사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변하지 않고 지속되었다. 특히, 대만을 둘러싸고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만에 대한 직접 언급은 향후 미국의 대만을 둘러싼 중국 압박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관련하여 대만 문제를 직접 미중 간 문제로 연계해서 언급하지 않은 점은 대만 문제가 미중 간 휘발성 있는 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대만 문제를 철저하게 중국 내부의 문제로 간주하여 조국 통일의 관점과 양안 동포의 염원 차원에서 접근할 뿐 미중 전략경쟁 차원에서 대만 문제를 보지 않으려는 중국의 의지가 투사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안정과 내적 지향의 2022년

2021년 12월, 2022년 경제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가 열렸다. 해당 회의의 핵심 정책 기조는 '안정'이었다. 중국은 올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 초대형 스포츠 행사와 20차 당대회 등 주요 정치행사를 앞두고 있다. 반면, 2021년 12월 말경부터 산시성(陝西省) 시안(西安)시가 봉쇄되는 등 코로나19가 재차 확산하고 있다. 미국과 미국 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환경에서 중국이 내세우는 정책 방향은 바로 '안정'이었다. 이러한 기조가 신년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2022년 신년사의 기본적인 흐름도 '안정' 기조의 유지였다. 이러한 상황 인식은 대외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내 문제를 잘 다뤄야하는 차원에서 국내에 관련된 화합, 통합, 협력 등의 강조에 집중되었다. 그리고이러한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역사에서 소환된 '토굴 대화' 서사가있었다. '민주'를 통해서 역사 위기를 극복했던 마오쩌둥처럼 시진핑 또한 '자아혁명'을 통해서 현 위기의 파고를 넘겠다는 의지를 신년사에 담았다. 안정을 부르짖을만큼 2022년이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는 현실 인식이 신년사에 고스란히 담겼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